

한국갤럽 Gallup Report 2013/7/4

## 대통령의 중국 방문, 우리 국민은 어떻게 생각할까?

6월 27일부터 30일까지 나흘간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후 처음으로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시진핑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 한중 미래비전 공동성명 발표, 칭화대 연설, 현지 한국기업 시찰 등 주요 일정을 소화했는데요, 귀국 직전 불거진 윤창중 사건으로 빛바랜 5월 미국 방문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로 마무리됐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어떻게 평가할까요? 국익에는 얼마나 도움이 됐다고 생각할까요? 한국갤럽이 지난 7월 1~3일까지 3일간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911명을 대상으로 방중 성과, 박 대통령 인식 변화, 북핵 관련 중국 입장 등에 대해 물었습니다.

### 조사 개요

1. 조사기간: 2013년 7월 1~3일(3일간)
2. 표본추출: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
3. 응답방식: 전화조사원 인터뷰  
(한국갤럽 전화조사원이 무작위로 생성된 휴대전화 번호로 직접 전화를 걸어 인터뷰)
4. 조사대상: 전국의 만 19세 이상 남녀 911명
5. 표본오차:  $\pm 3.2\%$ 포인트(95% 신뢰수준)
6. 응답률: 16%
7. 의뢰기관: 한국갤럽 자체조사

### 주요 결과

- ‘박 대통령 중국 방문, 국익에 도움됐다’ 78% vs. ‘도움 안 돼’ 10%
- 국익에 도움이 된 이유는?: ‘중국과의 관계 강화’(27%)와 ‘대북정책/한반도 비핵화 공감대 형성’(26%)
- 박 대통령이 한 가장 인상적인 일은?: ‘칭화대 중국어 연설’ 18%, ‘시진핑 주석 회담’ 7%
- 방중 후 박 대통령에 대한 생각은?: ‘좋아졌다’ 52%, ‘나빠졌다’ 2%, 변화 없다’ 40%
- 향후 북핵 문제에 대한 중국 입장은?: ‘남한 편’ 32% vs. ‘북한 편’ 22%
- 한반도 평화를 위해 가장 중요한 주변 국가는?: ‘미국’ 56%, ‘중국’ 35%, ‘일본’ 1%  
- 3월 대비 ‘중국’ 응답 17%포인트 증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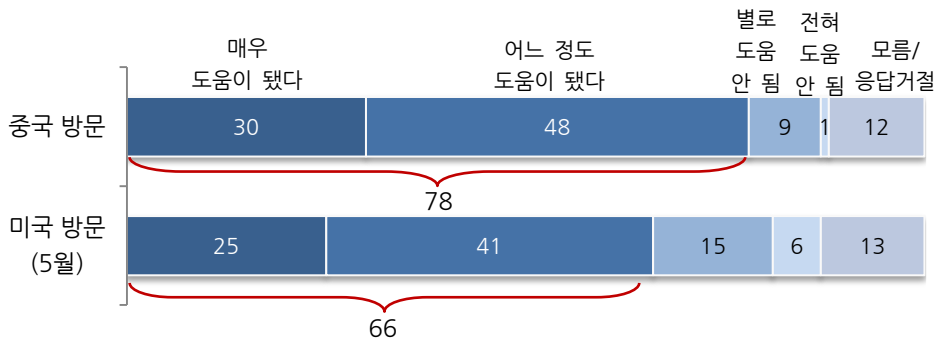
**‘박 대통령 중국 방문, 국익에 도움’ 78% vs. ‘도움 안 돼’ 10%**

한국갤럽이 지난 7월 1~3일까지 3일간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911명에게 대통령의 중국 방문이 우리나라 국익에 얼마나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는지 묻은 결과 ‘매우 도움이 됐다’ 30%, ‘어느 정도 도움이 됐다’ 48%로 우리 국민 열 명 중 여덟 명이 이번 중국 방문에 대해 긍정 평가했다.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9%,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1%로 10%는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지난 5월 미국 방문과 비교하면 도움이 됐다는 의견이 12%포인트 많았다. 미국 방문에서는 귀국 직전 불거진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 사건이 부정적 영향을 줬다.

박 대통령의 중국 방문이 국익에 도움이 됐다는 의견은 전 연령대에서 60% 이상으로 높았으며 특히 50대(90%), 60세 이상(84%)에서 두드러졌다. 지지정당별로는 새누리당 지지자(374명)의 87%, 민주당 지지자(183명)와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파(313명) 중에서도 70% 이상이었다.

▶ 박 대통령의 중국 방문은 국익에 도움이 됐는가? (단위: %)



구분	표본수(명)	(매우+어느정도) 도움이 됐다	(별로+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모름/응답거절	
전체	911	78	10	12	
성별	남성	451	81	9	10
	여성	460	76	11	14
연령별	19~29세	166	72	20	8
	30대	184	68	17	14
	40대	199	78	8	14
	50대	173	90	2	9
	60세 이상	188	84	3	13
주요 지지 정당별	새누리당	374	87	3	10
	민주당	183	70	18	12
	지지정당없음	313	75	11	14

질문)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한중 정상회담을 위해 중국을 방문했는데요. 귀하께서는 이번 중국 방문이 우리나라 국익에 얼마나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익에 도움이 된 이유는?: '중국과의 관계 강화'(27%)와  
'대북정책/한반도 비핵화 공감대 형성'(26%)**

박 대통령 중국 방문이 국익에 도움이 됐다고 보는 사람들(716명)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 '중국과의 관계 강화' 27%, '대북정책/한반도 비핵화 공감대 형성'이 26%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중국과의 경제협력' 17%, '한국 위상/이미지 개선' 6%의 순으로 외교/북핵/경제 등 다양한 분야의 성과가 평가됐다.

▶ 박 대통령 중국 방문이 국익에 도움이 됐다고 보는 이유는?

중국 방문 긍정 평가자 기준(716명)	%
중국과의 관계 강화	27
대북정책/한반도 비핵화 공감대 형성	26
중국과의 경제 협력	17
한국 위상/이미지 개선	6
정상 간 관계 강화	3
기업 활동에 도움	3
우리의 일관된 입장/원칙 제시	1
중국어 연설	1
기타	3
모름/응답거절	13

질문) 어떤 점에서 (박 대통령의 중국 방문이)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구체적으로 한가지만 말씀해주세요. (자유응답)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은 이유는?: '의례적 행사' 27%, '뚜렷한 성과 없음' 19%**

박 대통령 중국 방문이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보는 사람들(88명)은 그 이유로 '의례적 행사' 27%, '뚜렷한 성과 없음' 19%, '대북 관계 악화' 16% 등을 지적했다.

▶ 박 대통령 중국 방문이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은 이유는?

중국 방문 부정 평가자 기준(88명)	%
의례적 행사	27
뚜렷한 성과 없음	19
대북 관계 악화	16
한중 FTA 반대	5
국내 현안 시급	4
성과 발표 신뢰성 미흡	3
기타	2
모름/응답거절	25

질문) 어떤 점에서 (박 대통령의 중국 방문이)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구체적으로 한가지만 말씀해주세요. (자유응답)

**박 대통령이 한 가장 인상적인 일은?: '칭화대 중국어 연설' 18%, '시진핑 주석 회담' 7%**

중국 방문 기간 동안 박 대통령이 한 일 중 가장 인상적인 일을 묻은 결과 '칭화대 중국어 연설'이 18%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이 7%로 나타났다. 한편 응답자의 절반(47%)은 이번 방중에서 인상적인 일을 떠올리지 못했다.

▶ 박 대통령이 한 일 중 가장 인상적인 것은? (단위: %)

전체 응답자 기준(911명)	%
칭화대 중국어 연설	18
시진핑 주석 정상회담	7
한반도 비핵화 선언	4
중국과의 관계 강화	3
패션/한복	3
중국인들이 박 대통령에 우호적	3
시안 방문	2
국가 위상 보여줌	2
경제협력 강화	2
기타	9
없음/모름/응답거절	47

질문) 이번 중국 방문 중 박 대통령이 한 일 중에 가장 인상적인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구체적으로 한가지만 말씀해주세요. (자유응답)

**방중 후 박 대통령에 대한 생각은?: '더 좋아졌다' 52%, '더 나빠졌다' 2%, '변화 없다' 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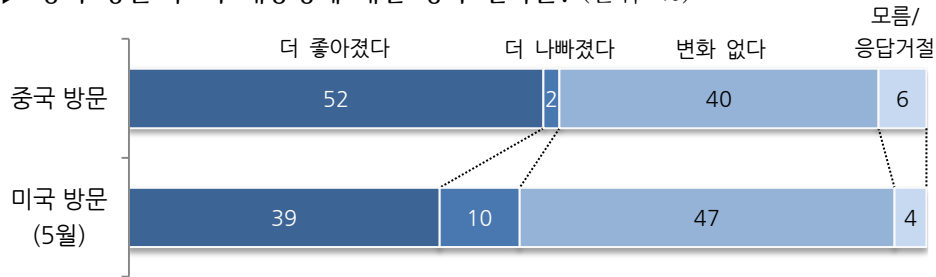
이번 중국 방문으로 박 대통령에 대한 생각이 어떻게 변했는지 묻은 결과 '더 좋아졌다' 52%, '더 나빠졌다' 2%로 긍정적 변화가 더 많았으며, 방중 전후 생각에 '변화 없다'는 40%였다.

이번 방중 후 박 대통령에 대한 생각이 '더 좋아졌다'(52%)는 의견은 지난 방미 후 39%에 비해 13%포인트 늘었다.

박 대통령에 대한 생각이 더 좋아졌다는 사람은 50대(72%), 60세 이상(74%)에서 많았고 새누리당 지지자(71%)에서 많아 기존 지지층의 호응이 컸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민주당 지지자의 35%,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파의 42%도 방중 후 박 대통령에 대한 생각이 긍정적으로 변했다고 답한 점이 눈에 띈다.

▶ 중국 방문 후 박 대통령에 대한 생각 변화는? (단위: %)



구분		표본수(명)	더 좋아졌다	더 나빠졌다	변화 없다	모름/응답거절
전체		911	52	2	40	6
성별	남성	451	52	3	39	6
	여성	460	41	1	41	7
연령별	19~29세	166	27	2	65	5
	30대	184	29	2	61	8
	40대	199	56	2	34	8
	50대	173	72	1	24	3
	60세 이상	188	74	1	18	8
주요 지지 정당별	새누리당	374	71	1	24	4
	민주당	183	35	1	57	6
정당별	지지정당없음	313	42	2	46	9

질문) 이번 중국 방문으로 박 대통령에 대한 생각이 더 좋아졌습니까, 나빠졌습니까, 혹은 변화 없습니까?

**향후 북핵 문제에 대한 중국 입장은?: '남한 편 들 것' 32% vs. '북한 편 들 것' 22%**

향후 북핵 문제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어떠한 것이라고 보는지 묻은 결과 '남한 편을 들 것' 32%, '북한 편을 들 것' 22%로 지금까지 남한보다는 북한과 우호적 관계를 유지해 온 중국의 입장 변화를 예상하는 응답이 10%포인트 많았다. 43%는 의견을 유보했다.

중국이 앞으로 남한 편을 들 것이라는 응답은 남성(31%)보다 여성(39%)에서 많았고 연령별, 지지정당별로는 뚜렷한 경향이 나타나지 않았다.

▶ 북핵 문제에 대해 앞으로 중국의 입장은? (단위: %)

구분		표본수(명)	남한 편을 들 것	북한 편을 들 것	모름/응답거절
전체		911	35	22	43
성별	남성	451	31	27	41
	여성	460	39	17	44
연령별	19~29세	166	38	23	39
	30대	184	34	26	40
	40대	199	36	21	44
	50대	173	33	27	40
	60세 이상	188	35	15	50
주요 지지 정당별	새누리당	374	38	20	41
	민주당	183	38	23	38
	지지정당없음	313	30	24	47

질문) 귀하께서는 북핵 문제에 대해 앞으로 중국이 남한 편을 들 것이라고 보십니까, 북한 편을 들 것이라고 보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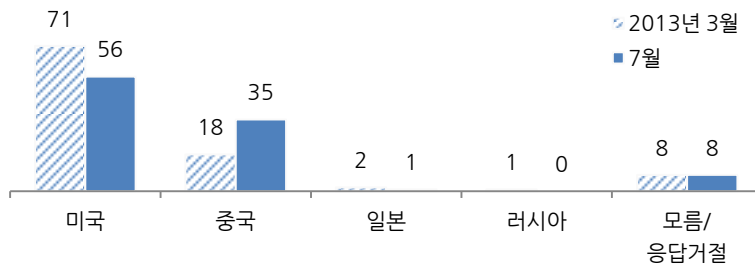
**한반도 평화를 위해 가장 중요한 주변 국가는?: '미국' 56%, '중국' 35%, '일본' 1%**  
- 3월 대비 '중국' 응답 17%포인트 증가 -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중 한반도 평화를 위해 어느 국가와의 관계가 가장 중요한지 묻은 결과 '미국'이 56%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중국'이 35%로 나타났다. '일본' 응답은 1%에 불과했다.

지난 3월 조사와 비교하면 '미국' 응답이 15%포인트 줄고 '중국'이 17%포인트 늘었다. 3월은 북한 3차 핵실험 후 UN대북제재안 등 국제적 비난여론에 맞서 북한의 도발 위협이 최고조에 달했던 시기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중국(49%)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많았으며 미국이 중요하다는 의견은 20대(71%)에서 가장 많았다. 지지정당별 차이는 크지 않았다.

▶ 한반도 평화를 위해 가장 중요한 주변 국가 (단위: %)



질문) 한반도 평화를 위해 우리 주변국인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중 어느 나라와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십니까?

▶ 한반도 평화를 위해 가장 중요한 주변 국가 (단위: %)

구분	표본수(명)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모름/응답거절	
전체	911	56	35	1	0	8	
성별	남성	451	52	40	1	0	7
	여성	460	60	30	1	0	9
연령별	19~29세	166	71	23	2	0	4
	30대	184	57	35	0	1	7
	40대	199	46	49	1	0	5
	50대	173	55	39	0	0	6
	60세 이상	188	54	29	0	0	16
주요 정당별	새누리당	374	60	34	1	1	5
	지지 민주당	183	56	37	2	0	5
	지지정당없음	313	54	34	0	0	12